

中企 청년, ‘계속 근무’ 의향 절반 미만… 임금·근무환경 영향

중기중앙회, 청년 1000명 인식조사
재직자 계속 근무 의향 46.7% 그쳐
근무 경험자 58.7%는 1년 못 채워
일자리 선택 기준 임금·근로시간 순
기업 규모보다 실질적 근로조건 중시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청년들이 향후 ‘계속 다니겠다’고 답한 비중은 절반을 못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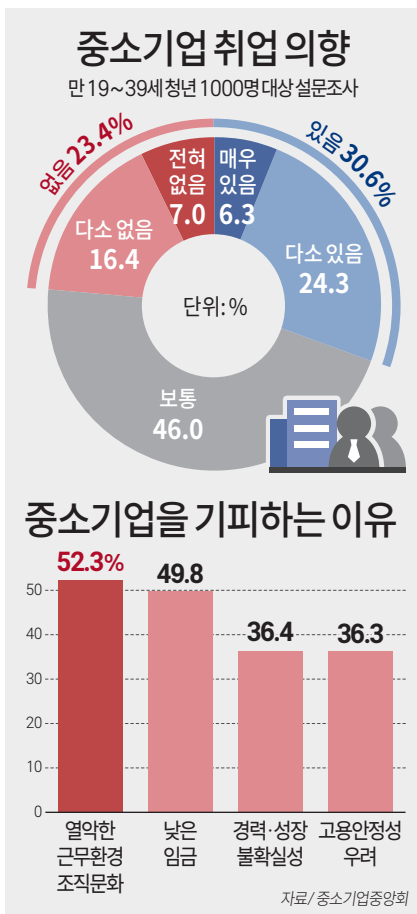
중소기업 재직 경험이 있는 청년 가운데 10명 중 6명 가량은 총 근무 기간이 1년을 채우지 못했다.

청년들의 일자리 선택 기준 1순위는 ‘임금 수준’이었다. 10명 중 6명은 월급(세전 기준) 250만원 이상을 희망했다.

또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기업규모보다 임금이나 근무환경 등 실질적 근로조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가 만 19~39세 청년 1000명을 대상으로 ‘청년층 대상 중소기업 일자리 인식조사’를 실시해 25일 내놓은 결과에서 나왔다.

조사 결과 중소기업 재직 청년들의 ‘계속 근무’ 의향은 46.7%(매우 있음+다소 있음)에 그쳤다. 다만 ‘없다’(다소 없음+전혀 없음)는 답변(14.5%)보다는 3배 이



상 높게 나타났다. 긍정도 부정도 아닌 ‘보통’도 38.8%로 적지 않았다.

향후 ‘중소기업 취업(재취업) 의향’에 대해선 ‘보통’이 46%로 가장 높은 가운데

‘있음’(30.6%)이 ‘없음’(23.4%)보다 다소 높았다.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이유로는 ‘열악한 근무환경·조직문화’(52.3%)가 가장 높았다. 이외에도 ‘낮은 임금’(49.8%), ‘경력·성장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36.4%), ‘고용 안정성에 대한 우려’(36.3%) 등이 뒤를 이었다.

이런 가운데 과거 중소기업 근무 경험이 있는 청년 191명 가운데 58.7%는 중소기업 총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으로 매우 짧았다. 퇴사 사유로는 ▲낮은 임금수준(41.4%) ▲열악한 근무환경(37.2%) ▲과도한 업무·장시간 근로(37.2%) 등이 주로 꼽혔다.

일자리 선택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로는 ‘임금 수준’(64.7%)이 가장 높았고 ‘근로시간’(51.9%), ‘고용안정성’(50.9%) 순이었다. 또 청년층의 56.5%가 기업규모보다 실질적인 근로조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다.

청년들이 생각하는 취업 환경은 매우 우울했다.

올해 취업·채용 기회가 지난해보다 ‘감소했다’는 응답은 46.6%로, ‘확대됐다’(7%)보다 39.6%p나 높았다. 내년 취업·채용 기회에 대해서도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이 40.3%로 ‘확대될 것’(9.4%)이란

답변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청년층이 고용시장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신입채용 시 직무·실무경험 요구’(52.0%)가 가장 높았으며, ‘경력직 중심의 수시채용 확대’(48.7%)가 뒤를 이었다.

이런 가운데 청년층의 55.3%는 임금·복지·직무 등 조건이 맞다면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 취업을 고려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을 고려할 때 중요한 조건으로는 ‘주거 지원’(55.2%)이 가장 높았으며 ‘수도권 대비 경쟁력 있는 임금’(47.5%), ‘교통·통근 지원’(43.9%) 순이었다.

취업을 고려할 수 있는 지역으로는 ▲비수도권 중소기업(39.8%) ▲광역시(34.2%) ▲조건이 맞으면 지역 무관(21%) 순이었다.

중기중앙회 양옥석 인력정책본부장은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과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의 임금·복지 격차를 완화하고 근무환경과 조직문화를 개선해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중소기업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HD현대

미국 첨단 조선소 신설 해외 생산거점 확대 가속

HD현대가 미국에 첨단 조선소를 새로 짓는 등 국가별 시장 여건에 따라 신규 건설과 기존 시설 임차·인수를 병행하며 해외 생산거점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25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HD현대는 지난 22일(현지시간) 미국 휴스턴에서 현지 건설·엔지니어링 기업 키윅과 조선 합작법인 설립 계약을 체결했다. 합작법인 명칭은 ‘HD키윅조선’이다.

양사는 지난 7월 전략적파트너십을 맺고 미국 내 선박 공동 건조와 선박용 블록·모듈 생산을 논의해 왔다. HD현대의 선박 건조·조선소 운영 역량과 키윅의 시설 건설 경험을 결합해 현지 생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美 키윅과 조선 합작법인 설립
2029년 첨단 조선소 가동 목표
인도 신설·동남아 기존 시설 활용

소상공인대회서 안승배·송경덕 대표 ‘산업훈장’

부산 벡스코서 이틀간 행사 개최
우수 소상공인 153개사 제품 선택
정부포상 등 유공자 147점 시상

‘2026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서 신영주·우수 안승배 대표가 은탑산업훈장을, 산하식당 송경덕 대표가 동탑산업훈장을 각각 수상했다. 스킨블루 권혁환 대표와 삼영이엔지 김영홍 대표에게는 산업포장이 돌아갔다.

25일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 23~24일 이틀간 부산 벡스코(BEXCO)에서 ‘2026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가 열렸다.

소상공인대회는 민생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의 위상과 중요성을 알리고 소상공인이 당당한 경제주체로서 성장·도약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오른쪽 2번째)이 23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벡스코(BEXCO)에서 열린 ‘2026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개최식에서 소상공인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중기부

할 수 있도록 응원하며, 그 성과를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2006년부터 개최해 왔다.

올해로 21회째를 맞은 이번 대회는 ‘소상공인이 만드는, 더 큰 대한민국’을 주제로 ▲우수 소상공인 제품 전시·판매전 ▲업종별 우수 기술·기능 체험전 ▲부산 소상공인 민생·혁신 포럼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첫 날 개막식에선 산업훈장 2점 등 정부포상 21점, 장·차관급 표창 126점 등 총 147점에 대한 유공포상이 수여됐다.

우수 제품 전시·판매전에는 전국의 우수 소상공인 153개사가 참여해 식품·생활용품·공예품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였다. 관람객들은 제품을 직접 보고, 맛보고, 만져 보며 구매할 수 있어 소상공인·소비자의 판로 확대와 지역 소비 활성화를 위한 기회가 마련됐다.

업종별 기술·기능 체험전에는 메이크업마용사회, 문신사중앙회, 조리기능장

협회, 애견협회, 플로리스트협회, 드론산업연합회, 제과기능장협회 등 7개 업종별 단체가 참여했다. 관람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소상공인의 우수한 기술과 기능을 알렸다.

이 밖에도 ‘부산 소상공인 민생·혁신 포럼’, ‘소상공인 대상 노무·법률 교육’, ‘소상공인 라이브커머스 데이’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진행됐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추사를 통해 “811만 소상공인은 민생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뿌리”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현장을 지켜온 소상공인이 당당한 경제주체로서 경쟁력을 높이고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MBK·영풍, 패소에도 고려아연 압박 지속 “글로벌·AI 전환으로 경쟁력 강화해야”

8300억 주주대표소송 청구 전부 기각
금융·펀드 투자 의혹 제기엔 회사 반박

MBK파트너스(MBK)와 영풍이 고려아연을 둘러싼 8300억원대 주주대표소송에서 패소한 뒤에도 추가 의혹을 제기하면서 소송과 여론전을 통한 경영권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기업가치와 주주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안팎에서 커지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2일 MBK·영풍 측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약 8300억원 규모의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측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고려아연 측은

이번 판결을 두고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응한 이사진의 경영 판단이 인정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MBK·영풍 측은 판결 이후에도 고려아연의 금융 투자와 펀드 투자 기대 등을 둘러싼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고려아연은 서로 다른 시점에 이뤄진 개별 거래의 금액과 자금 흐름을 임의로 연결한 주장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고려아연은 회사의 여유 자금을 활용한 금융 투자는 재무적 투자 목적이며, 펀드의 구체적인 투자처 선정과 집행은 운용사(GP)가 주도하는 사인이라고 설명했다. 개별 거래의 사실관계와 의사결정 과정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채 일부 거래 내역만으로 자금 흐름에 특정 의도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양성운 기자 ysw@

삼양그룹 창립 102주년 맞아 혁신 주문
김윤 회장, 사업 고도화·재무 안정 강조

김윤 삼양그룹 회장이 창립 102주년을 맞아 글로벌·스페셜티 중심의 사업 고도화와 인공지능(AI) 전환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주문했다.

김윤 회장은 지난 23일 창립 102주년 기념사에서 “102년의 빛나는 역사지만, 이것이 우리의 미래를 담보해 주지는 않는다”며 “그룹의 변화와 혁신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지정학적 리스크와 원유 파동, K자형 경기 양극화에 AI 격차도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며 “시대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치열

한 노력이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과제로는 글로벌·스페셜티 중심의 사업 고도화와 안정적인 현금흐름 중심 경영, AI 전환을 제시했다. 불확실성이 높은 경영환경에서 사업 경쟁력과 재무 안정성을 높이고 일하는 방식의 변화도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회장은 “올해 일본 향료·향장 전문 기업인 ‘Soda Aromatic’ 인수, 삼양엔씨켐의 고부가 포도레지스트 소재 공급 확대 등을 통해 글로벌·스페셜티 기업으로서 한층 성장했다”며 “그룹 자체 AI 플랫폼 ‘SAMI 2.0’을 구축해 일하는 방식에서도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현대리바트가 현대건설이 추진하는 ‘더뉴하우스’ 사업의 공식 인테리어 파트너로 참여한다.

현대리바트는 지난 22일 서울 강남구 디에이치 갤러리에서 현대건설과 ‘더뉴하우스’ 공동부·세대 토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더뉴하우스는 현대건설이 기존 아파트의 외관과 조경, 커뮤니티 시설, 첨단 주거 시스템 등 공용부를 신축 단지 수준으로 개선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다. 전면 철거 후 새로 짓는 재건축이나 리모델링과 달리 입주민이 거주 중인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현대리바트는 더뉴하우스 사업 추진 단지의 세대 타입과 입주민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맞춤형 리모델링 옵션을 마련하고, 희망 세대에는 주방·거실·욕실 수납 등 주거 공간 전반의 설계부터 시공, 사후관리(A/S)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김승호 기자